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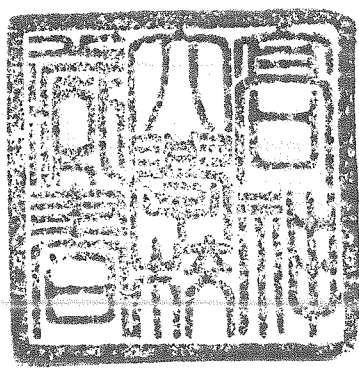
CT  
23942  
79987

#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소고

시도교수 유 해 무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 년 월 일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김 희 종

 고신대학교



1991학년도

# 김희종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9      년      월      일

## 目 录

I . 서론 .....	1
- 연구 목적과 방법 .....	1
II . 본론 .....	3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 .....	3
1-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전제 .....	3
1-1-1. 하나님 중심사상 .....	3
1-1-2.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 ....	6
1-1-2-1. 하나님의 조정수단 .....	6
1-1-2-2. 조정으로서의 성경 .....	7
1-1-2-3. 조정으로서의 성육신 .....	10
1-2.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신학의 구조 .....	12
1-2-1. 제1권 .....	13
1-2-2. 제2권 .....	13
1-2-3. 제3권 .....	14
1-2-4. 제4권 .....	15

2.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위상과 구조 .....	16
2-1. 예정에 대한 칼빈의 사상 발달 과정 .....	16
2-2.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위치 .....	20
2-3.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구조 .....	22
3.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	24
3-1. 기독교 강요 3권 21장, 22장, 24장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	24
3-1-1.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	25
3-1-2. 예정과 예지 .....	31
3-1-3. 타락전 예정과 타락후 예정 .....	33
3-1-4.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선택) .....	35
3-1-5. 선택과 구원 .....	38
3-1-6. 예정과 견인 .....	43
<b>III . 결 론</b> .....	45

## I. 서론

### — 연구 목적과 방법

예정론(Predestination)하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며, 심지어는 교회 밖의 일반 사회인들까지도 알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정론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예정 사상 전반에 비교해서 볼 때, 단편적인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은 불합리하며, 예정론을 만든 하나님은 폭군, 편파적인 존재이며 예정론은 인간을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파괴해 버린다고 하는 불평과 반박들이 있어왔다. 또한 예정론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신앙의 혼선을 빚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불평과 혼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정 사상을 정리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칼빈이라 하겠다.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sup>1)</sup> 이 작정에 의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로 결정하셨다고<sup>2)</sup> 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됨으로 그는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칼빈은 말한다.<sup>3)</sup> 이 진술과 진술 속에 포함된 여러 내용이 명백한 성경의 진술이며 구원론의 핵심인 것과,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신앙고백의 내용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부터 24장까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소고는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있는

1) 기독교 강요, III. 21.5

2) Ibid., III. 23.5

3) Ibid., III. 21.5

칼빈의 예정론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위의 진술과 진술 속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이 어떻게 증명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소고로 인해 예정에 관한 불평과 혼선이 평신도들로부터 제거되어지는 유익을 기대한다.

본론은 1장, 2장, 3장으로 나누었는데 1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중심 사상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는 - 자연과 인간, 성경, 성육신 - 는 하나님 조정 사상이 칼빈 신학의 전제인 것을 설명하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신학의 구조를 다룬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전체적인 신학의 이해 후, 2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위상과 구조를 설명하는데, 먼저 예정에 대해 점점 더 확신되어져 가는 칼빈의 사상 발달 과정을 살펴본 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자유를 자신의 모든 신학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칼빈의 신학을 예정론의 신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진술로 예정론의 위상을 점검한 후 예정론의 구조를 다룬다. 이어서 3장에서는 「기독교 강요」 3권 21장, 22장, 24장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유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이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하는 칼빈의 이중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미래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예지(미리 아심)에 따라 결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는 것을 밝히는 예정과 예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선택 혹은 유기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데 이에 반해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문제를 다룬 타락전 예정설과 타락후 예정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지는 것을 다룬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여기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등이 하나님의 예정(선택)에 그 근거가 있음을 다룬 예정과 구원, 한번 구원 받으면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전하심을 선언하는 예정과 건인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때까지 살펴본 것에 관한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서 본 소고를 끝맺고자 한다.

## II. 본 론

### 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

#### 1-1.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전체

##### 1-1-1. 하나님 중심 사상

칼빈주의의 중심사상은 그 위대한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어떤 이가 말한 바에 의하면 “감리교는 죄인의 구원에, 침례교는 중생의 신비에, 루터교는 이신득의에, 모라비안교는 그리스도의 상처에, 히랍정교는 성령님의 신비에, 로마교는 교회의 보편성에 각각 치중함과 같이 칼빈주의자는 항상 하나님 사상에 치중한다”고 하였다.<sup>4)</sup> 칼빈주의자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부터 사상 체계를 출발하지 않았으니 이를테면, 인간의 개심이나 칭의 같은 것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의 주도적 사상은 하나님이 당연히 차지하셔야 할 권리를 차지하시도록 함이다.> 칼빈주의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롬 11:36) 이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생활 원리로 삼고 실현하려고 한다.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일치한다. 다만 그것을 일정한 술어로 표현시키려고 할 때에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 뿐이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원자존성이 그의 주요 속성인 만큼, 그것을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기본원리가 그렇게 말해져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 체계의 기본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특별

4) Pressly, Mason., Calvinism and Science, Article in Ev. Repertoire, 1981, p. 662

한 한개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 '영원자존'이란 말은 적어도 직접으로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관계를 표현하여야 할 우주관적인 구성적 원리라고 지적하기가 곤란하다.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는 실상 이런 우주관적인 구성적 원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자존은 우주와는 관계가 없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과 우주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술어가 필요하다. 그 관계를 제일 잘 지적한 것 같고 또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술어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란 말이다. 해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계와 도덕계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다.<sup>5)</sup>

하나님은 단지 최고의 입법자 또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도 자존하신 지배자이시다. 곧 도덕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리, 과학, 예술등의 영역과 또는 그의 사랑, 그의 모든 은사 실시의 영역에서도 그러하시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믿는다. 곧 하나님은 그의 은사 실시에 있어서나 사람과 자연을 섭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서는 신국 법칙의 제일 조항이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진리, 사랑, 도덕, 과학등의 영역도 모두 법칙과 질서에 속하여 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섭리하시는 우주 가운데서 법칙과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체계를 발견한다. 이 아름다운 체계는 자연의 세계와 은혜의 영역과 인간의 지적, 도덕적 생활영역과 기타 모든 은사의 영역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이 모든 것을 분배함과 관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존자로 계신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고 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최고의 입법자요 또 자연 법칙을 지으신 분이라는 단순한 법적 술어로서보다는 바로 위에서 말한

---

5) 헨리미터,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운선, 김진홍 공역, 서울: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3. pp16-17



것과 같이 보다 더 함축성있는 의미로 바로 이해될 때에 그것이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를 가리키는 술어로 쓰일 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곧 바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를 가리키는 술어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체계를 이루고자 할 때에 구사하는 술어가 바로 이 술어이다.<sup>6)</sup>

---

6) Ibid., pp.18-19

1-1-2.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

위의 사상과 함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 신학에 있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필요에 맞추어 조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성경해석과 칼빈의 모든 신학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며 전제이다.

1-1-2-1. 하나님의 조정 수단

조물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 (「기독교 강요」 제 1 권)아니 신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엄청난 심연을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심연을 연결해 놓은 다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전체가 계시의 다리나 수단이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둔하다해도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는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이지 않고 쉽게 알 수 없는 속성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눈에 보이고 쉽게 알 수 있는 의복으로 입히신 것이다.<sup>7)</sup> 이렇게 크고 작은-유한한- 모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 낮아지셨다. 좀 더 시야를 좁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체를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해 분량에 자신을 조정하신 하나의 증거다.<sup>8)</sup>

그러므로 우리들이 눈을 돌려 천체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 사계절의 순환, 인간 실존의 무대에 일어나는 평범한 기적과 비범한 기적들을 보면 바로 이 극장에서 이 거울 속에서 우리의 피조된 자아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한다.<sup>9)</sup>

7) 기독교 강요, I. 5.1

8) Ibid., I. 5.2

9) 도널드 매깅,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pp42-43

## 1-1-2-2. 조정으로서의 성경

눈에 보이는 창조계 자체가 아직 똑바로 서 있는 아담이 자신의 갈 길 (운명)을 읽는 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된 성경, 특히 옛날 유대인들을 위한 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에게 맞도록 자신을 조정하고 계셨다. 칼빈은 자신의 신앙여정 초기에 벌써 구원사에 대한 바울의 이런 해석을 파악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해석을 먼저 그의 조카 로버트의 불어역 신약성경 머리말에서 나중까지 - 1536년판 「기독교 강요」 제1장의 요약적인 첫 부분에서 - 되풀이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계시 방법을 참을성있게 조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때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다.<sup>10)</sup>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 드러내어(계시하여) 하나님의 계시나 그분 자신의 의사소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 칼빈의 견해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sup>11)</sup>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니 타고난 본능에 의해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sup>12)</sup> 하지만 이 신에 관한 의식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지는 못했다. 그 대신 인류는 그들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들이 그분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 성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증거에 의해 정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13)</sup> 인간은 교만하고 헛되며 고집불통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측대로 하나님을 상상한다.”<sup>14)</sup>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무지와 악

10) Ibid., p.45

11) 기독교 강요 I.4.1

12) Ibid., I.3.1

13) Ibid.,

14) Ibid., I.4.1

의의 소치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묵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다.<sup>15)</sup>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르게 그분의 영광에 적합한 것, 곧 우리가 알아서 혜택이 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sup>16)</sup> 이 참된 지식을 얻는 필수조건은 경건 곧 “경외심에다 그분의 여러 축복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해진 것이다.”<sup>17)</sup>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참지식은 개인적이지요, 실제적인 것으로 관찰한다. 그러나 죄가 이 지식을 파괴한다.<sup>18)</sup>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을 뜨면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천지간의 헤아릴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있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인류는 그것을 배척한다.<sup>19)</sup> 인간들은 “그들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사로 단장된 작업실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부요가 넘쳐 흐르는 창고가 있으므로 당장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데도 그대신 실제로는 더욱 더 교만으로 으스스대고 뽐낸다.<sup>20)</sup> 인간의 마음이 “무저갱”이 된다.<sup>21)</sup> 뜻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거부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배웠더라면 아무 것도 확실하거나 명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혼란한 원리에 얽매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했을 것이다.”는 것이 칼빈의 결론이다.<sup>22)</sup> 자연 신학이나 인간의 이성 작용은 그 최악스런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를 수 없다.<sup>23)</sup>

15) Parkwr, Doctrin of the knowledge of God, pp.121ff. 도날드 매  
 김, op.cit., p62에서 재인용.

16) 기독교 강요, I.2.1

17) Ford I. Battles, ed. and trans, The piety of John Calvin: an anthology of  
 Illustrative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rker, 1978)

18) 도날드 매김, op.cit., pp.61-63

19) Rogers and Mckim, Authority, p.101 및 p.215 Ibid., p.63에서 재인용.

20) 기독교 강요, I.5.4

21) Ibid., I.5.12

22) Ibid.,

23) 칼 바르트(Karl Barth)와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칼빈의 이 자연신학에 대해  
 날카롭게 반대 견해를 보인다. 도날드 매김, op. cit., p.63에서 재인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자신의 조물주에 대해서 혼동과 무지의 와중에 빠져 있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이 우주의 조물주에게로 안내하는” “다른 더 좋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인간의 실제적인 지식 욕구를 채워 주셨다.<sup>24)</sup>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공하심은 “구원의 장본인”으로 알려지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지식” 욕구를 답해준다. 칼빈은 성경의 기능을 안경의 기능과 비교한다. “노안이나 근시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장정의 책을 내민다면 그들은 그것이 글이라는 것을 알지만 단 두 자도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빌리면 분명히 읽을 수 있듯이 성경도 우리 마음에 혼잡하게 흐트러져 있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으고 우리의 우둔함을 추방하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sup>25)</sup>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참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 중요한 근원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길잡이다. “먼저 성경 학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옳고 건전한 가르침을 조금도 맞볼 수 없다.”<sup>26)</sup>

성경은 자연과 우주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인간의 죄때문에 피조물을 통한 계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데 필요하다.<sup>27)</sup>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타락한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잊기가 얼마나 쉬운지, 온갖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끊임없이 새롭고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려는

24) 기독교 강요. I.6.1

25) Ibid., 이 안경의 비유를 다우이 파커, 위필드는 저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26) Ibid., I.6.2

27) Berkouwer, General Revelation, , chap.5참조. 도날드 매킵, op.cit., p.65에서 재인용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아 망각을 통해 없어지지도 않고 오류를 통해 사라지는 일도 없고, 사람들의 만용때문에 훼손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유용한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의 도움을 마련해 주셨음이 틀림없다.”

이러므로 성경은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데 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인간의 겸손이 요구된다.<sup>28)</sup>

### 1-1-2-3. 조정으로서의 성육신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성육신(이 모든 증거는 성육신을 보여주고 또 성육신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은 우리의 신령한 아버지, 교사, 의사, 재판장, 왕의 가장 뛰어난 조정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경우 기독교 복음 전체를 단순한 수사법의 표현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깐 멈추어 칼빈이 신학 언어에 대해 경고한 것을 신중하게 새겨 들도록 하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두 곳에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인간 언어를 의존한다는 인상에서 벗어난다. 그 첫 부분은 제1권 13장5절인데 여기서 그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실은 삼위일체 자체도 비성경적 용어임) 세르베투스(Servetus)등의 비평에 자극을 받아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게 될 경우는 그런 용어들을 성급하게 거부하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28)도날드 매킵, op.cit., pp.64-65

면 건전한 성경의 교훈이 담긴 것으로 여겨 겸손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sup>29)</sup>

칼빈은 성만찬에 관한 장을 쓰는 것을 주저하면서 이 최상의 신비를 다루는 데는 자신은 물론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이 완전히 부적절함을 솔직하게 시인한다.<sup>30)</sup> 이 생명을 주는 성찬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경이이다. 그러나 칼빈의 견해를 불완전하게나마 해석한다면 조정 즉 하나님의 조정이 이 성찬속에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또는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물질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이 조정된 것이다. 우리는 쾰빙글리(Zwingli)처럼 물리적인 표(Sign)를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비에서 물리적인 표를 분리시켜서도 안되고 또한 로마 신학자들처럼 무리하게 그것을 격찬함으로써 신비 자체를 모호하게 해서도 안된다<sup>31)</sup>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를 개정, 조직하여 추가한 제2권6장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중”지식으로 짙막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에서 경고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도 지고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격의 조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장은 앞장에서 다룬 인간의 타락을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 및 신구 계약관계에 대한 장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제2권의 결론적인 기독교론 장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여기서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연 질서는 우주의 구조가 학교가 되어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전을 배워 거기에서 영생과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반역 이후로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저주와 부딪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로서의 은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해도 우리는 우주를 목상함으로써 그가 아버지시라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수한 기적으로 가득찬 하늘과 땅이라는 이 장엄한 극장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고전1:21)라고 부른다.

29) 기독교 강요., I.13.5,3

30) Ibid., IV.17.7

31) 도날드 매킴, op.cit., p.49.

우리는 우주를 묵상함으로써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를 통해 얻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멸시한다”.<sup>32</sup>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후로부터는 중보자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조정 행위는 칼빈의 주석 베드로전서 1:20에 다음과 같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중재자로 내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함과 우리의 이해의 빈약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예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높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무저갱이다. 둘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지만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피하여 도망가고 접근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어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추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심을 진정시켜 양심이 감히 하나님께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모든 조정의 수단들은 -피조된 우주의 광대한 영역에서 완악한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선지자의 특징있는 말 한마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실마리는 성경에 있다.) -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중재라는 지고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33</sup>

## 1-2.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구조

32) 기독교 강요. II.6.1

33) 도널드 매킵, op. cit., pp. 50-51.



### 1-2-1. 제1권

칼빈은 1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 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와 인간)와 섭리를 말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떠나서 다만 우주와 인간 자신을 통해서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로마서 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행17: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에 근거하여 자연 계시에 근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sup>34)</sup>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3 이다.<sup>35)</sup>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 인간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성령의 경험도 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단편적이라는 뜻이다. 즉 인간은 자연 계시에 의해서 만든 구원의 신지식(The Saving Knowledge of God)이나 구원의 신앙(The Saving faith)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제6장에서 “성경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잡이와 선생 노릇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라는 제목을 다루고 제13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다룬다.<sup>36)</sup>

### 1-2-2. 제2권

칼빈은 제2권에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34) 기독교 강요. I. 5. 14

35) Ibid.

3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 이 형기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p. 101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소외되어 있는가를 논한다. 환원하면 죄론과 기독교론 혹은 인간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Person)과 사업(Work)을 연결시킨다. 여기에서 칼빈은 1-3장까지 인간의 소외 혹은 죄악의 상황을 묘사하고, 4-8장까지는 율법에 의한 죄의 규정을 소개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9-17장) 복음을 다룬다.

이 복음이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속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 양심, 자유의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아니 전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홀로 출애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구속주, 구주, 중보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중보자는 3중적 직분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다. 즉 죄와 율법의 고발 나아가서 죽을 수 밖에 없으며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저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따라서 제 2권은 소외와 화해로 요약된다.

저 복음사건은 온전히 은혜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 혹은 화해 사업은 우주적이며 만민을 위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및 부활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업이다.<sup>37)</sup>

### 1-2-3. 제3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화해 내지는 구속이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인간에게 실현되는가를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취급한다. 이것은 성령론에 해당된다. 성령께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 혹은 복음 사건을 주관화, 혹은 현실화시킨다. 물론 제4권

3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 이 형기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pp. 165-166

에서 취급되는 설교, 세례, 성만찬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할 때 성령의 사역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서는(제Ⅲ권) 아직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교회에 관하여 칼빈은 논하지 않는다. 역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성령론을 칼빈은 다룬다.

여기에서 칼빈은 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회개 혹은 중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앙인의 기독교적 삶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논한다. 그런데 3권 11-14장은 칭의론, 20장은 기도론, 21-24장은 선택 교리를 다루었고 끝으로 25장은 종말론을 다루었다. 즉 3권은 구원론과 성화론 그리고 종말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화해 사업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효험을 일으켜 은혜와 신앙으로서의 구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성화란 단순히 수도원적 이상을 실현하는 성화 즉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내적 성화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성화이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이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예정론 혹은 선택 교리가 구원론과 성화론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주장 다음에 놓여졌다는 사실이다. 즉 예정론이 신론에 사변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화와 기도의 경험을 전제한다.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택정하셨고 누구는 유기하셨는가에서 신학적인 사고를 출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 수용한 후 구원과 성도의 경험과 더불어 이 예정과 선택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 예정 교리를 기독교 강요 제 1권이나 제 2권에서 취급하지 않고 제 3권의 끝부분에서 논했다.<sup>38)</sup>

#### 1-2-4. 제4권

3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 이 형기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pp. 257-258

제4권의 초점은 교회론에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 교직, 성찬론 및 (교회와) 국가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칼빈은 이와같은 주제들을 논할 때 잘못된 교리들(주로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견해들)을 곁들여서 논박하고 있다.

제 4권은 사도신경의 4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부활에 대하여(종말)는 제 3권 마지막 부분에서 취급되었고 제 4권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가 기관이 덧붙여지고 있다.

제 4권의 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 사업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개될 수 있나를 다룬다. 그래서 제 4권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귄으로 초대하시고 이 사귄에 머물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이었다. 말씀설교, 세례, 성만찬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매개시키는 수단인 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귄으로 초대하며 이 사귄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그런데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가장 끝부분에서 국가론을 다루는데 국가 역시 원칙상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시키는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sup>39)</sup>

## 2.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위상과 구조

### 2-1. 예정에 관한 칼빈의 사상 발달과정

알렉산더 슈바이처(Alexander Schweizer)가 1844년에 그리고 페르디낭드 크리스찬 바우르(Ferdinand Christian Baur)가 1847년에<sup>40)</sup> 예정이 칼빈 신학의 핵심 교리요 그의 가르침 가운데 모든 독창적인 것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으로 주장한 이후로 역사가들과 교의학자들은 지난 4분의 3세기에 걸쳐서

3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 이 형기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p. 353

40) 도널드 매킵, op.cit., p. 208

언거꾸 이 발언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 신앙의 한 조항인 양 되풀이 해오고 있다.<sup>41)</sup> 물론 칼빈은 예정의 선택과 유기 양면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으며 예정을 추호도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멜란히톤의 견해에는 한번도 동조한 적이 없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판을 거듭하면서 이 예정에 더욱 더 많은 공간을 할애했으며 이 교의에 대한 공격의 결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글을 쓰기까지 했다. 그러나 칼빈이 이중 예정을 가르쳤으며 그것의 교의적 및 실제적 관심을 강조했다는 점을 인정한다해서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초기 글에 보면 이 문제가 조직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나중에 비록 어거스틴과 부처<sup>42)</sup>의 영향을 받아 거기에서 차츰 중요성을 덧붙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신학의 주요 바탕으로 삼으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교회와 목회 사이의 선입견에 이끌려 그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랑수아 웬델(Fransua Wendel)같은 사람도 있다.<sup>43)</sup> 그러므로 예정에 대한 칼빈의 사상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질문을 다루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유 그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지만 이 예정에 대해서는 아주 드물게 말할 뿐이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1559년 판에 예정에 할애했던 네장이다. 베른트(Wernle)가 말했듯이 “예정에 대한 믿음은 칼빈주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 체험의 수수께끼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최후 결과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없다”.<sup>44)</sup>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는 예정이 독립된 교의로 나타나지 않았다. 칼빈은 이것을 단 두번 즉 신조의 두번째 조항을 설명하는 대목과 교회의 정

41)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주목할만한 예외가 있다. A. 라출은 1868년부터 칼빈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이 유일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론과 맞섰다., 도날드 매킵, op.cit., p.209에서 재인용

42) Doumergue, Jeon Calvin, , vol.4, pp.406f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 부처가 칼빈에게 미친 영향을 너무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 드러난다. 반면에 어거스틴의 비교는 늘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Ibid., p209에서 재인용.

43) 도날드 매킵, op.cit., p208.

44) Wernle, Der evangelische Glaube, p.403. Ibid., p201 에서 재인용

의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 점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지옥으로 내려감이 뱀전3:18-19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만큼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 능력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던 신실한 사람들은 이때 그분의 임재를 뚜렷이 보았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그분이 유일한 구원인데도 자신들이 거기서 담혀진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았다.”<sup>45</sup> 여기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 사이의 대조에 칼빈이 나중에 상세하게 제시한 예정의 교의가 이미 항의되고 있었는가?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교의에 관한 글에 이르러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칼빈은 간략한 문장으로 한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의 연합,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 선택의 결과 - 곧 부름받음, 칭의 및 영화 - 에 이어서 선택받은 자들의 견인 및 유기된 자들로부터의 구별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부르심과 칭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 이 양쪽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부름받고 칭의받지 않고는 하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예외없이 자기가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선택을 조장하고 드러내시기 때문이다.”<sup>46</sup>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선택과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호에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구원의 “성실 불가능성”이었다. 그가 관찰한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유기된 자들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써 우리로서는 성경에 두 부류를 가르치는 “확실한 표시”가 어느 정도 있다해도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확실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47</sup>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한 분이시며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45)CR 1.70(os 1.83), Ibid., p210에서 재인용.

46)CR 1. 73(os1.86f). 또한 Augustine, 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17.34(ML 44.986); Bucer, Metaphrases epistolarum pauli, 1536, p359참조, Ibid., p211에서 재인용.

47)CR 1.75(os1.89), Ibid., p211에서 재인용

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의 판단”을 하여 선택받은 자와 교회의 지체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칼빈은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게 공통된 선택 교의를 자신의 것으로 채택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한 특별한 명령의 결과로 여겨지던 유기론도 채택했는가? 이 점은 확실치 않다.<sup>48</sup>

칼빈이 1537년 제네바에서 쓴 불어판 요리문답(Catechism)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예정에 관한 문제가 율법에 대한 설명 다음 구속에 관한 조항 앞에 나오고 있다.

1539년에는 예정이 더욱 더 교회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은 설교의 결과와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더 더욱 발전된 이론을 구원 사역 다음에 곧 섭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장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형태는 1544년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559년 칼빈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하여 섭리 논의를 신론 끝에 그리고 예정은 성화와 칭의에 대한 이론 전개 다음에 놓았다. 1559년 예정과 섭리사이에 세워진 비교의 기초는 예정과 섭리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결정, 곧 시간 밖에 자리잡고 있는 영원한 결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확신이다.

1559년 칼빈은 예정론을 신론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sup>49</sup> 그대신 그는 예정을 그리스도 및 그의 일과 관련시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sup>50</sup> 신론 결론부에 놓인 섭리론이 췌기들

48) 우리는 또한 칼빈이 예정과 예시에 대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 일이 없는 루터와 부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며 궁금해한다.

49) 기독교 강요 I.15.8

50) 칼빈이 자신이 이러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결정한 신학적 동기를 부각시켜 놓은 공로는 무엇보다도 제이콥스에게 돌아간다: 예정론이(선택이 구원경륜 안에

이 아치를 마무리 하는 것같이 신론을 완성하듯 예정론은 구속 설명 전체를 완성하고 조명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에서는 예정과 섭리사이의 교리가 이 둘의 평행적인 기능에 내재하고 있다.<sup>51)</sup>

## 2-2.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위치

「기독교 강요」 초판(1536년)에는 예정론이 독립된 항으로 취급, 논술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선택받은 자의 무리”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간접적인 표현만 있었다는 점과, 제2판(1539년)에 와서야 제8장에 독립된 장으로 취급되고, 제5판(1559년)에서도 제3권 성령론 속에서 이신득의, 회개, 성화, 기도 다음에 예정론을 다듬으로써 칼빈에 있어서 예정 교리는 단순한 논리적 귀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다. 또한 1543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2제네바 신앙고백에서도 예정교리에 관한 것이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예로들어 예정교리가 다른 교리보다 뛰어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한다.<sup>52)</sup>

개혁교회는 보편적으로 예정교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학, 신앙고백, 그리고 여러가지 논쟁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을 강요하는 면에서나 발전시키는 면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예정은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 중의 하나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루터가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의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sup>54)</sup>

물론 이러한 예정교리의 중요성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논하

자리잡는 것처럼) 창조론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고찰되지 않고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50) 도널드 매킴, op.cit., p213

52) 이형기,

53) 이 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5), p23

54) Ibid.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판 제3권에서 이신득의, 회개, 성화, 기도 다음에 예정교리를 다룸으로써 결국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내지는 선택의 은혜에 의하여 이신득의, 회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1537년 “제네바 요리문답(Genevan Catechism)”에서 칼빈은 예정교리를 신의 결정(God's decrees)에 대한 추상적 사변이 아닌 목회적이고 실존적인 경험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 요리 문답에서 예정사상은 12장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다.”와 14장 참 신앙 사이 즉 13장에서 논의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를 목회적 관심에서 해명하려고 했다. 칼빈이 얻은 답은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경건성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 창조전 행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적 작정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감추어진 사실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다.”<sup>55)</sup>

칼빈은 초기부터 이중예정을 주장하였고 추상적 내지는 논리적 사변이 아니라 교회 정의와 신앙경험과 결부시켜 예정교리를 취급했다.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예정교리를 제3권 끝부분과 (성령론 혹은 은혜를 수용하는 방법) 제4권(교회론) 직전에서 취급한다. 칼빈은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 제2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및 화해 사역을 다루고 제3권에서 이신득의, 회개, 성화, 기도에 관하여 논한 다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령을 통해 실현될 때 비로소 예정론을 취급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칭의, 회개, 성화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수 경험이 비로소 예정 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난다.<sup>56)</sup>

55) Jdhn Calvin, Christliche Unterweisung: Der Gerfer Katechismus von 1537, übersetzt von Lathar Schuckett (Furche, 1963), p29. 이 형기, op.cit., p309에서 재인용

56) 이 형기, op.cit., p.400

또한 이렇게 취급된 예정론은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라는 교의에 보다 밝은 빛을 비추어 교회론을 위한 신학적 바탕을 제공해야 했다. 이 점은 예정에 관한 첫장 서두에서 볼 때 분명하다. “이 생명의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지 않고 또 전파된 곳에서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다양성이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 어느 사람에게는 제공되고 나머지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지는 것이 명백하다면 여기서 여러가지 중요한 질문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답하는 방법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한 선택과 예정에 관해 고수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다.”<sup>57)</sup>

이로 볼 때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사상의 신학이며 그 하나님 중심사상의 표현은 곧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 취급한 형식과 구조면에서 본다면 예정론은 칼빈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정론에서 말하려고 한 그 정신이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진 그 주제 즉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자유를 그의 모든 신학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칼빈의 신학은 예정론의 신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총의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 2-3.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의 구조

21장 1-4절에서 칼빈의 예정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에 관하여 주제넘게 말을 하거나 혹은 전혀 침묵을 지키는 것이나 모두다 잘못 되었다고 한다.<sup>58)</sup>

57) 기독교 강요 Ⅲ.21.1. Augustine, De done perseverantiave 15-17(ML 45.1016-20 이것은 칼빈의 CRS. 326등등에 빈번하게 인용됨) 도날드 매킴, op.cit., p215에서 재인용.

5-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개인들과 관련시켜 예정교리를 정의한다. 칼빈은 먼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칼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에 이어 이스라엘 개개인의 선택과 유기에 관해 논한다.<sup>58)</sup>

22장 1-6절에서 칼빈은 선택을 공로에 대한 예지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sup>59)</sup>

7-11절에서는 예정의 성경적 근거를 반대하는 자들의 이론을 반론한다.<sup>60)</sup>

칼빈은 8-9절에서 암브로스 오리겐, 제롬의 예지예정을 반론한다. 어거스틴도 한때는 이 이론에 동조했다고 칼빈은 말한다.<sup>61)</sup>

칼빈은 예정만이 있고 유기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실 유업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3권23장1절)고 한다.<sup>62)</sup>

칼빈은 23장 2절에서 또한 예정하시는 하나님을 번덕스러운 폭군으로 보는 사람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원인이요 또한 원인이 되어져야 한다. ... 이 하나님의 뜻은 가장 높은 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은 의롭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 (3권 23장 3-4절) 인간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롬9:19-23; 11:33)이 있다고 칼빈은 잘라 말한다. (3권 23장 5절)

58) 존 칼빈, op. cit., p.335

59) Ibid., p. 326

60) 존 칼빈, op. cit., p. 338

61) Ibid., p. 339

62) Ibid., p. 340

63) Ibid., p. 341

칼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의지와 허락이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타락했으나 그것은 동시에 인간 자신의 잘못이었다....인간은 그의 악한 의도에 의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바 순수한 본성을 부패시켰고 그의 타락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하였다.” (3권 23장 8절) 라고 말할 때 인간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혹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진리는 결코 사탄과 죄악을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여기에서 또한 함축되어 있다.

끝으로 23장 12-13절은 예정의 목적을 두가지로 말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지극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배워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3권 23장 12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엡1:4)<sup>64</sup>

24장 1-5절은 피택자들의 효과적 소명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의 합체에 관하여 논한다.<sup>65</sup> 6-11절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논한다. 피택자와는 달리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와 죽음을 맛보게 한다. (3권 24장 12,13절) 그리고 이 유기된 자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이들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들은 복음을 수용하지 말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과 의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3권 24장 14절)<sup>66</sup>

### 3.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 3-1. 「기독교 강요」 3권 22장, 23장, 24장에 나타난 칼빈의 예정론

64) Ibid., p.342

65) Ibid., p.343

66) Ibid., pp.345-346

### 3-1-1. 이중예정(선택과 유기)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며, 유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는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예정이라 한다. 물론 이중예정은 칼빈이 처음으로 발견한 교리는 아니다. 칼빈보다 1천년 전의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미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인 선택과 공의의 표현인 하나님의 유기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조직화한 사람일 뿐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그의 의지와 행위와는 무관하듯이 (창25:13, 말1:2, 롬9:11) 에서가 선택되지 못하고 유기된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을 바울의 글을 인용하여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두사람이 아직 선악을 나타내기 전에 벌써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sup>67)</sup>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시에 유기에의 근거로써 칼빈은 바울의 로마서 9장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것도 동일하게 그의 뜻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논술하였다.<sup>68)</sup>

예를 들면 정원사가 화단에서 화초를 들볼 때, 어떤 것은 잘 가꾸어 주지만 다른 것은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0-21절을 인용하였는데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67) 기독교 강요 III.23.4

68) 기독교 강요 III.23.5

권이 없겠느냐?”고 하면서 선택과 유기에 관한 궁극적인 결정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헤스본 왕 시혼(신2:30), 가나안 족속들(수2:30),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삼상 2:25), 애굽의 바로(출 9:16)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칼빈이 유기교리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독교강요」 제 3권 23장 1-3절에서도 토마서 9장과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신의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며 인류역사의 목적으로써 이해했다. 역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앞에 드러내 준다. 그분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선지도 역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며 유기도 마찬가지이다.<sup>7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자와 선택받은 자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오직 우리가 확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sup>71)</sup> 사실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앞에서 언급한 토마서 9장 등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중예정 교리의 핵심 사상은 바울에 있어서의 이신득의 내지는 구원론에 있음을 말하였다. 칼빈은 이와같은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다시 인용하였다.(요6:31-39,44-45) 칼빈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중예정을 주장하면서 예정설이 곧 말씀과 반응,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sup>72)</sup> 칼빈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자

69) Ibid., III.23.4

70) 프레드 크로스터,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6), p.317

71) 기독교 강요 IV, 1.3

들의 주장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구원의 초월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을 더욱 앞에도 내세운다. 이 예정교리가 초월적 근거를 상실하는 일부 개신교의 구원론에 반하여 칼빈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려는 의도를 구원의 초월적인 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72)</sup>

칼빈에 의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다. 하나님 고유의 사역인 선택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실현될 인간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선택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한 다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sup>74)</sup>

칼빈은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이는 수용하고 어떤 이는 수용하지 않는 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현상이라고 본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은 목회현장의 경험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실제로 생명의 은혜 언약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 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결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확실히 이와 같은 차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단을 말한다. ...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하여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의 샘터에서 흘러 나온 것임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대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 말해준다.”<sup>75)</sup>

72) 이 형기, 칼빈주의 예정교리”,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편찬 위원회 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서울: 개혁주의 신학회, 1986), p. 293

73) 김 홍석,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신대학 신학 대학원, 1987, p. 27

74) 프레드 크로스터, op. cit., p. 287

75) 기독교 강요 III. 21. 1

칼빈은 5절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32:8)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다. 즉 하나의 민족은 여호와가 택하셨으나 다른 민족들은 버리셨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에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효가 많은 언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7:7-8) (3권 21장 5절)

다음에 칼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에 이어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선택에 대하여 6절에서 논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구원의 선택을, 어떤 이는 유기하셨다. 예컨대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버리셨으며 다윗은 택하시고 사울은 버리셨다.

즉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말라기 1장2-3절과 로마서 9장 13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sup>76)</sup>

칼빈은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말한다. 칼빈은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한다. 즉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히 칼빈은 이 “부르심”을 “설교”와 연결시킨다.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효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야 한다<sup>77)</sup>. 이 설교를 통하여 양자의 성령을 받게 되며, (롬8:15) 영생의 약속을 확약 받으며, 영생의 기업을 보증받는다. (엡1:13-14; 고후1:22; 5:5)

76) Ibid. III.21.6

77) 기독교 강요 III.24.1



그리고 이때에 돌같이 굳은 인간의 마음이 녹아지고, 죄악의 마음이 변혁되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며, 멸망의 자식이 영생의 자식으로 변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말씀설교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명, 구원, 성화, 회개, 기도같은 현재적 경험을 통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선포하신다. (사65:1)

여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부한다. 이 거부의 이유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성령의 효율적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 이 내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줄 안다.”(요일3:24;4:14)고 말했다.”<sup>78)</sup>

칼빈은 버림받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버림이 죄인인 모든 인류가 응답받아야 할 죄가 인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일찌기 하나님은 그의 영원불변하신 계획에 의하여 그가 오래전에 구원에 이르도록 결정하신 자들과 한편 멸망에 맡길 자들을 정하셨다. 또 이 계획이 선택된 자에 관한한 자유롭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단언한다.”<sup>79)</sup>

그 칼빈의 예정교리는 선택된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택론”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80)</sup> 선택의 논리적 대칭은 유기로 나타난다. 칼빈이 말한 유기의 이유는 선택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주권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78) Ibid. III. 24. 2

79) Ibid. III. 21. 7ff

80) 유 태주,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교리 비판”,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4, pp. 34-35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므로 안에서 그들을 유기하셨는가? 혹은 유기  
의 당사자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의 악  
한 행위를 미리 예지하시고 유기하신 자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된다.

칼빈은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려고 노력하  
였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sup>81)</sup> 하나님께서 인간  
의 악행을 예지하신 이유 때문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잠언16장 24절을 들  
어 설명하고 있다.<sup>82)</sup> 이와 같은 칼빈의 이중예정교리는 그의 후계자인 베자  
(Baza)의 주장에 대항하는 반응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화된 교리이며<sup>83)</sup> 유기  
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삼가해야 된다고<sup>84)</sup>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  
지 말자. 다만 주님의 한량없으신 지혜의 보고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중하고, 이에 순종해야한다”<sup>85)</sup> 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아담의 타락과 유기 of 궁극적  
인 이유가 되며, 인간의 범죄는 단면적인 이유가 된다. 칼빈은 이사야 6장9  
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중에 이 구절이 신약에서 여섯번이나 (요12:40, 마  
13:14, 4:12, 행28:25, 눅8:10, 롬11:8) 언급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이사야가  
백성의 마음을 어렵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파송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파  
송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이다. 그  
이유는 인간 각자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자들만을 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86)</sup>

81) 기독교 강요 III.22.11

82) Ibid. III.23.6

83) 아서 커스텐스, The Sovereignty of Grace,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서울:기독교 문  
화사, 1986), p.197

84) 기독교 강요 III.22.11

85) 기독교 강요 III.23.8

86) 존 칼빈,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

칼빈은 선택과 유기를 다같이 언급하였지만 유기와 선택을 완전히 같은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선택과 유기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때, 양자가 모두 동일한 의미이거나 단순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비통일성은 칼빈이 사용한 용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선택과 유기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묘사된 반면에 선택은 '은혜로우신'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유기는 '의로우신'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주 나타나고 있다.<sup>87)</sup>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유기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선택의 근거는 되지만 유기에 있어서는 관련시키지 않고 있다.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도 역시 유기에 이유는 되지만 인간의 의지나 행위는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88)</sup> 그리고 선택과 유기가 통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또 다른 측면은 유기보다 선택교리에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의 생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89)</sup>

지금까지 선택과 유기에 각기 다른 측면을 고찰하여 보았으나, 계속해서 이 교리들의 동일한 면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양자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동일하게 그 기초가 아님은 마찬가지이며,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서 계획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sup>90)</sup>

### 3-1-2. 예정과 예지

울:기독교 문화사, 1986), pp. 135-136

87) 프레디 크로스터, *op.cit.*, p.339

88) 프레디 크로스터, *op.cit.*, pp. 339-341

89) *Ibid.*, p. 341

90) 김 홍석, *op.cit.*, pp. 26-28

칼빈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는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sup>91)</sup> 예정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이해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결정내리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먼저 칼빈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정설을 받아들여 보듯 예정설(predestination)과 예지(foreknowledge)를 혼돈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두 교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으나 전자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택은 신앙과 선행들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에 의거한다. (롬9:11, 행13:48, 딤후1:9) 따라서 유대인들의 탁월함이나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근거가 못된다.

우리 자신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탁월한 자가 되게 하는 모든 선한 것의 창작자일 뿐 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속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영예의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 원인까지도 모두 취하였음을 그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92)</sup>

칼빈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행위로부터 선택되었다는 논증을 거부한다.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행위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야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이다.<sup>93)</sup>

칼빈은 계속해서 선택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서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장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 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7,39)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 아래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발단이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은사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sup>94)</sup>

91) 기독교 강요 III.22.1-7

92) 기독교 강요 III.21.5

93) Ibid, III, 22.4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은 아들의 사랑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은 아버지의 소유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17:9) 그러므로 전 세계가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없이 멸망해야 했던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여 내신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sup>94)</sup>

또한 칼빈은 “예수께서는 선택의 진리를 아버지와 공유하신다”고<sup>95)</sup> 함으로써 예정론 속에서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이다. 따라서 선택의 본래 동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삼으려고 생각하시는 자들을 값없이 선택으로 택하신다. 그러나 이것의 내재하는 원인은 그 자신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감추인 자기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sup>96)</sup>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셨기 때문만 임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롬9:19) 곧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sup>97)</sup>

### 3-1-3. 타락전 예정과 타락후 예정

선택의 시기에 관하여 칼빈의 신학을 추종하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자주 혼돈되고 있는데, 곧 타락전 예정설(Supralapsarianism)과 타락후 예정설(Infralapsarianism)이다.<sup>98)</sup>

94) Ibid., III. 22.7

95) 기독교 강요 III. 22.7

96) Ibid., (요13:18에 근거)

97) Ibid.

98) 유 태주, op. cit., pp. 35-37

99) B.B. 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박 종철 역, (부산: 새 시대 문화

타락전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선택, 혹은 유기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인데 반해 타락후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보신 후에 예정하셨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타락전 예정설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중생시키신다. 그렇지만 타락 후 예정설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을 허용하시고, 예정하셨으며, 구주를 예비하여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0</sup>

칼빈은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내다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며 예지를 말하는 것은 무익하며,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의 주권적인 예정하심의 증거인 것이다.”<sup>101</sup>고 하여 창세전 타락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의 주장을 따르는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sup>102</sup>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1장9절, 디도서1장2절, 로마서16장25절, 에베소서1장4절등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같은 학자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예정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타락후에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론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걸여된다. 왜냐하면 타락 후 예정론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되기 때문이다.<sup>103</sup> 더우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2장에

사, 1972), pp. 23-26.

100) 로렌 비트너,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홍 의표 역, (대구:보문 출판사, 1972), pp. 152-153

101) 기독교 강요 Ⅲ. 22. 9

102) 김 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정음출판사, 1976), pp. 208-209

서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 오시안데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의 영원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타락전 예정과 타락후 예정중 전자를 가르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sup>103</sup>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타락의 시기는 타락전 예정설이 더욱 타당하며<sup>104</sup>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타락후 예정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나 이것들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05</sup>

### 3-1-4.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선택)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sup>106</sup>

이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의 선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의 샘이 구원의 닻이요, 천국의 후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야 한다.”<sup>107</sup>는 사실을 칼빈은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서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엡1:4)<sup>108</sup>는 말씀을 칼빈이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

103) B.B. Warfield, op.cit., p.27의 도표 참조

104) 기독교 명저 60선, 편집부, (서울:종로서적, 1985), p.55

105) 기독교 강요 III.22.2

106) 기독교 강요 III.24.5

107) Ibid.

108) Ibid.

하실 수 없고 또한 그들이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에 참여된 자가 아니면 천국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수가 없다.”<sup>109</sup>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 합하게 하시 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에 그리스도 는 우리가 택함받음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속임없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신다.<sup>110</sup>

따라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의 사귄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책(계 21:27)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와같이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칼빈 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게 됨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증명되었 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옷입고(롬13:44) 그 안에서 함께 자란다(엡4:15).” 그가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롬8:32)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써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 시인이시다.”<sup>111</sup>고 강조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이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선택권을 주장하신 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고 하신다(요13:18). 어디서 택하셨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109) Ibid.

110) Ibid.

111) Ibid.

112) Ibid.

113) Ibid.



면, 그는 다른 귀절에서 “세상에서”라고 대답하신다(요15:19). 그러나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에서 그는 세상을 제외 시키신다(요17:9).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일부분 곧 그 덕의 성질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암시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택의 창시자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무도 자기의 노력이나 근면에 의해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칼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요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에 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특별한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계수되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sup>114)</sup>

또한 칼빈은 “만일 모든 자들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생명으로 결정되어졌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를 맞아 들이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선택의 담보는 주어졌다.”<sup>115)</sup>고 고백한다.

114) John Calvin, *Christliche Unterweisung der Genfer Katechismus*, Furch Bucherer, Furche-Verlag, H. Rennebach, K. G. Hamburg, 1963, Einband Synodklein, Gesantherstellung: clausner and Bosse, Lech (printed in Germany), p.38, 유태주, op.cit., p.44에서 재인용

115) Ibid.

이상에서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있다.<sup>116</sup>

그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선택론에 있어서 분리시키지 않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will)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sup>117</sup>

### 3-1-5. 예정과 구원

예정(선택)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탐구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 선택자들에게 향해 전달된 이 부르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자들 편에서 아무런 장애물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죄지은 사람이 자신의 상황의 내적인 필연성에 따라 악을 저지르기로 뜻하고 범했듯이, 칭의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서 자신에게 명령된 것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새로운 상황의 필연성에 맞추어 나간다. “이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선을 원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 뜻을 만들고 형성해 놓으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고 기울어지게 하시고 조절하실 뿐 아니라 이 마음을 자신의 소유로 다스리신다는 말이다.”<sup>118</sup> 어거스틴을 따라 칼빈은 더욱 더 분명하게 이런 주장을 한다.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는 것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배척하거나 받아 들이라는 뜻에서가 아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여 은혜의 움직임에 따르게 하며 그 은혜속에서 원하고 선택하게 한

116) cf. John Murre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6 Michigan, 1960.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6, p. 88

117) 유 태주, op. cit., p. 45

118) 기독교 강요 II. 3. 10

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따르는 모든 선한 일은 바로 동일한 은혜의 열매가 된다.”<sup>119)</sup>

물론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선택받은 영혼은 어쨌든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지가 사멸된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중생은 선택받은 자의 의지를 해방시켜 준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미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서 지적했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원의 약속이 그분 안에서 보장되듯이 선택의 인침을 받는 것도 그분 안에서이다. 이것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3위의 제2위로서 그의 능력 가운데 선택 칙령에 참여하셨고, 또 중보자로서 그의 능력 가운데 이 선택의 입안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의 선행조건으로 당연히 생각되는 예정 자체를 강조하든 아니면 칼빈이 늘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제공을 강조하든 그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 오게 된다. 칼빈이 예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선택이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확신에서 칼빈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찾는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한다. 즉, 이 교제는 우리의 선택의 증거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믿음으로 그의 몸의 지체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싶어할 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무엇을 물으려고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 주신다. 이것은 마치 “나 여기있다. 날 목상하라. 그리고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을 알아라”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구원의 소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고 확신을

119) Ibid., II.3.13

얻는다”.<sup>120</sup>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자신의 선택을 오랫동안 생각할 여유가 더 이상 없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경건가운데 그 연합이 성취하는 기능을 그렇게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가 예정 문제에 대해서 가진 실제적 관심 때문에 그는 몇 번이고 선택과 그리스도의 연합 사이의 관계를 논할 수 밖에 없었음이 분명하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이것에 대한 그의 생각 중 일부를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로 선택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안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만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었으며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그들을 영예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면 우리 안에서는 전혀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도 우리가 그의 아들을 때어놓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응시해야 할 거울과 같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자기 소유로 삼기를 뜻하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지체로 인정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지체로 인정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로 제안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진 것이다.”<sup>121</sup>

그러나 여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는 뚜렷하고 적극적인 표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을 구체적 현실에서 표현하는 의를 통해서 그 자체를 드러낸다. “우리는 택자의 부르심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표시요, 증거라고 가르친다.

120) Congregation sur l'election eternella, CR 8.114. Bucer, Metaphrases epistolarum Pauli, p.359 참조. 도날드 매킵, op.cit., p.220에서 재인용

121) 기독교 강요 III.25.5

마찬가지로 그들의 칭의 또한 그들의 선택이 완성되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표이자 증거이다”.<sup>122</sup>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시이지만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확실한 표증은 “우리가 우리에게 전파되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데 있다”<sup>123</sup> 표증은 오직 속이는 일이 없지만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따르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특별히 부름받은 단계에서 선택받은 단계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칼빈이 칭의의 축복들을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의 어느 장에 보면 그는 다른 생각으로 말하면서 선택의 증거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들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와 같아서 주의 선하심의 위엄스런 빛을 우리들이 목상하는 것을 조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은 더욱 더 그것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24</sup> 이 문단은 정말 놀라운 대목이다. 칼빈에게서 미래 청교도의 싹이 보인다는 사람들의 견해를 이것이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기독교강요의 저자는 행위의 증거를 자신의 신학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그것도 아주 열등한 종류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그는 말한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고 수많은 결점들과 육체의 자취로 뒤섞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에서 복음의 약속들로 그것을 확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선하심을 행위에 따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그 보다 더 불확실하고 근거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행위를 그 자체로 파악한다면 사람의 가치 중립적인 의도의 순결성으로 사랑의 자애로움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122) Ibid., III.21.7; III.24.4 참조

123) 엡1:3-4 설교(CR 51.260); Bucer, Enarrationes in Evangelia, 1536, p. 579. 도널드 매 킴, op. cit., p. 222에서 재인용

124) 기독교 강요 III.14.18

행위의 불완전한함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아래 놓게 될 것이다.<sup>125</sup>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서 허락하시는 선물들이다. 물론 우리는 칼빈의 일부 제자들이 행위의 증거를 보다 긍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상당수의 칼빈의 영적 후계자들에게는 우리 행위의 품성함과 성공이 우리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노파심에서 되풀이 하지만, 칼빈 본연의 생각에 어긋난다.

선택에 의해 부여된 구원의 확정적이고 상실불가능한 성격에 대해 칼빈이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었다. 그는 “선택의 효력과 확고성은 믿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배척했는데, 믿음으로 선택이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에 효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sup>126</sup>”

믿음을 선택과 연결할 때, 합당한 순서는 믿음을 둘째 자리에 놓는 것이다. 이 순서는 그리스도의 다른 말씀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요6:39-4)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다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 위에 두시고 모든 사람을 신앙의 거룩한 유대로 그의 몸에 접붙이셨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담보 곧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보존된 담보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10:4-5)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양들의 귀를 주께서 뚫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의 양이 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sup>127</sup> 더 나아가서 선택의 완전한 확고성과 효력을

125) Ibid., III.14.19

126) 기독교 강요 III.24.3-4

얻으려면 머리되신 분께 호소해야만 한다. 이 머리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자신에게 결합시키시고 끊을 수 없는 띠로 묶어 매신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양자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금지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혜에는 전혀 다른 위엄의 탁월성이 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구원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sup>127</sup>

결론적으로 칼빈은, 우리의 구원의 바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견인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한데 묶으려고 한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배척되지 않는 한 실패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계셔야 하며, 그의 사지(지체)가 찢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듯이 자신의 신실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확실한 것이다. 덧붙여서 우리가 교회의 품안에서 살고 있는 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시온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sup>128</sup>

### 3-1-6. 예정과 견인

칼빈은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 기독교 강요 3권 24장 6-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짤막한 표현은, 한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시작했다 그쳤다 하지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날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볼 수 있다면 성도의 보전이란 말일 것이다. 성도의 보전이란 용어는 사람

127) 기독교 강요 III.22.10

128) Ibid., III.21.7

129) Ibid., IV.1.3, 도널드 매킵, op. cit., pp.224-225

이 하나님에 의해 보전되어짐을 가르쳐준다. 성도는 유지케 하심과 보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연합으로 위의 말을 증거한다. “선택의 확실성과 확고부동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복음의 조명을 받은 믿는 자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인도하실 때 이 교회 혹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맡겨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보호하신다고 크게 선포한다.”(요6:37; 17:6,12) 130

칼빈은 다음의 성경구절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확증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7-29)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131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 변함없기를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를 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일에서 무엇을 깨달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영원히 안전하리란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다. 칼빈은 일찌기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이미 이 점을 다루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의 생각에서 크게 중요시되었다. 132 그는 그때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 진정으로 속하는 사람이 나중에 멸망하거나 버림받는다든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뒷받침되고 있기때문에 세상이라는 기계 전체가 무너진다 해도 구원은

130) 기독교 강요 Ⅲ.24.6

131) Ibid., Ⅲ.24.6

132) Ibid., Ⅲ.24.6



떨어지지 않는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있으며 오직 영원한 지혜가 변하거나 사라져야 이 구원도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sup>3)</sup>

### Ⅲ.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각 사람이 선택 혹은 유기로 예정되었음은 성경적인 사실이며, 구원론의 핵심인 것과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신앙고백의 내용인 것임을 알아보았다.

이때까지 예정에 대한 선명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 귀한 고백의 감사를 만끽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예정이 우리가 언제나 겸손할 수 밖에 없음과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의 근거가 됨을 깨달아 가난한 심령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독교 명저 60선, 편집부, 서울:종로서적, 1985  
김 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정음 출판사, 1976  
김 홍석,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 신학 대학원, 1987  
도날드 매킴,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이 종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로렌 뵈트너,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홍 의표 역, 대구:보문출판사, 1972  
아서 커스텐스, The Sovereignty of Grace,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기독교 문화사, 1986  
이 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이 형기, "칼빈의 예정교리" 한석 오병세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편

133) 도날드 매킴, op.cit. p. 225

- 찬 위원회 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서울:개혁주의 신앙협회, 1986
- 이 형기,  
유 태주, “존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교리 비판”,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워 필드(B.B), The Plan of Salvation, 박 종칠 역, 부산:세시대 문화사, 1972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 종흡, 신복윤, 이 종성, 한 철하 공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8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 이 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 존 칼빈,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기독교 문화사, 1986
- 헨리 미터,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 윤선, 김 진홍 공역, 서울: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3
- Ford L. Battles, ed. and trans, The Piety of John Calvin : An Anthology of Illustrative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baker, 1978)
- Mason W., Calvinism and Science , Article in Ev. Repertoire, 1981